

담론 속에 나타난 창조주와 창조세계의 이미지(논평)

(목원대학교 기독교미술학과)

현 세상에서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예술적 가치의 패러다임인 인간중심의 자율과 자유주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방임으로부터 촉발된 예술의 중심의 상실 혹은 예술의 위기 상황은 자유주의적 시대의 예술작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결국 우리 사회와 예술계에 인간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게 되어 결국, 인간의 비인간화를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예술의 담론을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탐구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던 창조주와 창조세계로 확장하여 예술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독일의 미학자 바움가르텐(Baumgarten)의 진술대로 예술은 감성적 인식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만한 (즉 공통감각 Gemein Sinn으로 나아갈 만한) 활동이다(Aesthetica, 1750). 이 논문은 그동안 인간의 예술적 시각이 가지고 있던 한계와 편견을 넘어서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듯, 예술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예술 하는 자유로운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원래 창조세계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 풍성한 교제와 충만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예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에디스 쉼퍼, C. S. 루이스, 래비 재커라이어스, 폴 투루니에, 마크 헨비의 저서에 나타난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비유적 담론들을 통해서 그리고 토기장이와 흙, 질그릇의 비유를 살펴봄으로 창조주와 창조세계를 깊이 있고 폭 넓게 이해한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1960-70년에 이루어진 대형 프로젝트형 대지예술이 이벤트로서의 특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대지미술의 실천적 사례로써 과수 농사와 종묘와 같은 산업을 예술과 융합한 일은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 중의 한 사람인 헨리 무어는 “조각가는 형태를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공간을 점유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님은 자연의 단순한 물리적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으로 비유된 창조주의 창조성을 체험할 수 있는지 감상자 참여의 과정을 통해 소통의 방법으로 알려준다.

이렇듯 창조주와의 동역적 체험 속에서 창조주의 대지 작업이 갖는 거대 지평을 경험하는 일은 미켈란젤로, 로댕, 무어 등과 같은 미술가들의 이름이 창조적 진보과정에서 시대의 이정표가 되었듯, 예술 안에도 생명과 창조의 기능이 있다는 고귀한 교훈을 일깨우는 것이다. 작업 당시의 상황과 관객의 반응이 어떠한지, 앞으로 창조주의 의도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전개해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의 자연을 향한 의도(창조적 성향)를 제대로 해석할 때에만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 교수님의 ‘키네틱아트’에 대한 분석은 간단한 서술임에도 의미가 주는 깊이는 거의 압권이다. 오 교수님은 우주의 이미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보이는 시간성이 수반한 다양한 운동의 동적 공간이었으며, 이 공간은 3차원의 조각에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지미술을 비롯하며 지상에 세워진 모든 조형물들은 한 장소에 고정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외 없이 지구의 운행과 함께 회전하며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일찍이 만 레이, 뒤샹, 가보 등이 움직임에 대한 관심과 실험 제작을 하였으나, 이 논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움직이는 작품의 총체적 원형이 창조주의 설계와 고안 속에 들어 있다”는 선포는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며 세계와 예술이 창조주의 목적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래리 잭커라이어스의 유전자 구조를 초월자의 요소를 반영하는 놀라운 실타래로 설명하고 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세포를 유전적으로 연구하여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유익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실제로 유전자의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특정 유전자가 도입된 줄기세포의 치료분야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앞선 논의이긴 하지만 오 교수님께서서는 유전자의 형질연구와 예술의 융 복합 가능성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듣고 싶다.

아울러 고통의 문제는 마크 헨비와 성경이 말하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에서, 보다 조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지구위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질그릇은 인간의 삶과 우주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모티브로 등장한다. 체토의 과정과 불순물이 제거되는 정제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성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을 설명함과 아울러 조각의 원형적 의미를 열어 보이고 있다.

하나의 논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여러 가지 예술적 특징들을 설명해내시는 오 교수님의 탁월하신 지혜에 감동을 받는다. 폴 투루니에의 언급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에 몸을 의지하듯 눈과 귀가 즐거웠다.